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 소식을 전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캄보디아는 40 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5 월 첫째 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조금 더위가 식었습니다. 매일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원하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소그룹과 전체 모임을 통해 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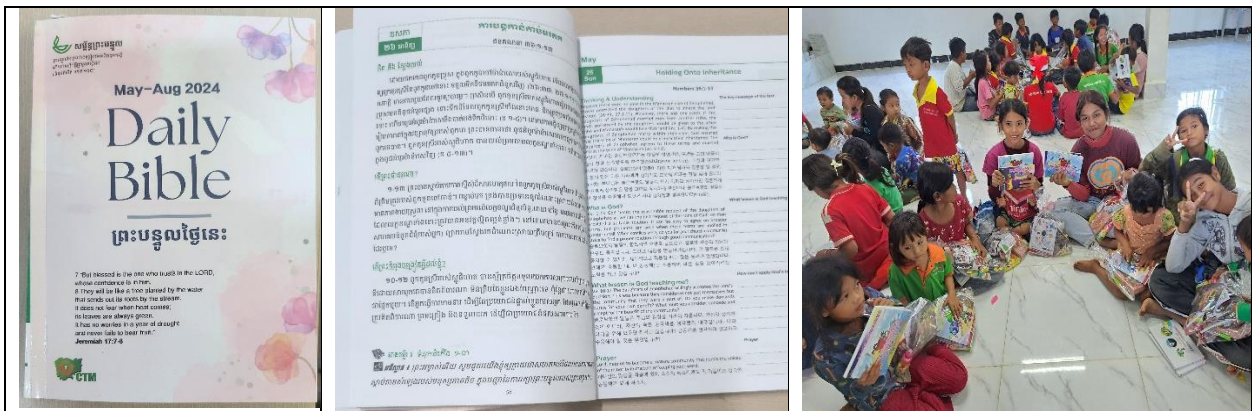
프놈펜의 글로링크국제학교는 지난 3 월에 호주교육부와 협의하여 WASC 인증허가를 받고 교사 훈련과 교과 과정 등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제일 유학을 가고 싶어하고 캄보디아 이민자가 많은 호주입니다. 8 월에는 학생들과 함께 호주방문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원어민 교사가 부족하지만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STEM Festival 에도 참가하여 입상을 하고 고교생들은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여 매주 목, 토요일에 전체 및 소그룹 모임을 하며 마을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쭈끼리 소망의 빛 학교는 첫 고교 졸업생 (28 명 졸업) 을 배출하면서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 (8 명이 A 학점을 받았음) 을 내게 되어 한 해에 약 100 명의 신입생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면서 기존의 예배 장소를 임시교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5 개의 교실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프놈펜의 글로링크 학교와도 자주 교류를 하며 연합 고등부 수련회와 연합 학습능력 테스트 등도 진행해 왔습니다.



큐티책도 올해 두번째 책인 5-8 월호가 출판되었고, 꾸준히 매일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물론이고 신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어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원더풀스토리 그림성경도 꾸준히 배부 중이고, 캄보디아에서 이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어 감사한 일입니다.



AM105 운동으로 아시아인 선교사를 발굴하여 훈련하던 중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하게 된 캄보디아인 차 oo 선교사 부부는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하였고, 인도네시아 언어로 조금씩 말씀을 나누는 사역도 진행중입니다. 저희에게 맡겨둔 3 명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것도 저희의 몫입니다. 곧 장성하여 자립할 때까지 MK 로 지내는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월 6 일-9 일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100 여명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지상명령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일을 통해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동탄 순복음교회 손문수 목사님과 19 명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 건강하게 사역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선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 하나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는 캄보디아 기독교인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 현지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도록
- 글로링크 국제학교와 소망의빛 학교 학생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 교실 공사 (글로링크 국제학교: 전기, 엘리베이터, 화장실 공사, 소망의빛 학교: 새교실 5 개 신축할 재정 확보) 가 속히 완성되어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 6 월 7 월 방문하는 단기선교팀들과 지역 교회들이 잘 협력하고 모두가 행복한 선교를 경험하도록

2024 년 5 월 15 일. 캄보디아에서 이성민 김창숙 선교사 드립니다.

- **연락처** : + 85512264364 / Katalk ID: am105 (이성민), cskim2032(김창숙)
Email : csnsm88@gmail.com
후원계좌 : KEB 하나은행 353-933052-08137 기아대책 이성민